

## 「-을/-를」의 공간적 의미

곽 종 훈\*

### 〈차 례〉

- |                     |             |
|---------------------|-------------|
| 1. 머리 말             | 4.1. 위치의 의미 |
| 2. 「-을/-를」과 관계된 논의들 | 4.2. 이동의 의미 |
| 3. 에스페란토의 공간 부가어    | 5. 맺 음 말    |
| 4. 공간적 의미           |             |

### 1. 머리 말

우리말에서 「-을/-를」은 명사 구절(sintagmo)에 붙어서 동사와 어울려 목적어가 된다고 한다. 곧, 「누가(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구절을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 명사가 「-을/-를」과 어울리고, 방향(이동), 출발, 위치(범위와 처소), 도착 따위를 뜻하는 자동사류와 어울려 쓰이는 것들」<sup>1)</sup>이 있다. 곧, 「누가 어디를 어찌한다」에서 「어디를」에 해당하는 구절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말에서는 공간적 의미 ‘어디’를 나타내고 쓴 단어는 대개 명사(구절)이다. 이와 같이, 명사(구절)에 붙어서 동사와 어울리는 「-을/-를」의 구절을 목적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목적어라 할 수 없는 ‘어디’와 어울리는 「-을/-를」의 구절이 나타내는

\* 경명여자중학교 교사

1) 곽종훈(1988), 246쪽, 1. 자동사에서의 쓰임

공간적 의미는 「-을/-를」이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든 인공적인 뜻을 가진 공간 명사가 이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동 동사(movoverbo)와 어울릴 때 나타난다. 동작 동사<sup>2)</sup>의 한 종류인 이동 동사는 어떤 위치나 공간에서 점, 선, 면, 공(空)을 기준으로 옮기는 뜻을 가지는 동사다. 그래서, 이러한 「-을/-를」의 공간적 의미가 보편적,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칙이 「-을/-를」의 공간적 의미를 주는지 확인해 보려는 데에 이 글의 뜻이 있다.

한편, 국제어 에스페란토(Esperanto)의 문장(frazo)의 구절(sintagmo) 가운데 몇몇의 경우에는 대격(akuzativo)의 형태를 지니면서 방향(direkto)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말에 있어서 「-을/-를」의 공간적 의미 연구에서 살펴볼 만하다. 그래서, 에스페란토의 경우에서 대격을 쓰면서 방향의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 나타나는 보기글을 살펴보다, 우리말에서의 「-을/-를」의 공간적 의미가 어떤 법칙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을/-를」의 공간적 의미가 나타나는 보기글은 편의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 (1991-1993년)」에서 뽑아 쓰기로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1984-1986년)」나 기존 논문에 인용한 보기글을 곁들이기로 한다. 이러한 보기글 가운데에는 방언이거나, 화자의 심리나 처지 따위에 비추어 볼 때, 조금씩 어색한 것[非文]이 있어서 일정한 법칙을 찾는 데에 얼마만큼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2. 「-을/-를」과 관계된 논의들

「-을/-를」의 공간적 의미와 관련하여 논의가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

2) 千機哲(1984), 5쪽, 1.3. 先行研究의 檢討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을/-를」의 의미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통사적 의미, 기능적 의미, 문맥적 의미, 더 나아가 담화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논의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논의를 훑어보면 「-을/-를」의 명사 구절에 쓰인 「-을/-를」이 혼자 공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을/-를」의 공간적 의미는 이동 동사와 공간 명사가 「-을/-를」 따위의 위치 또는 공간 조사로 어울려서 만들어 준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이동 동사와 공간 명사가 위치 또는 공간 조사로써 어울릴 뿐만 아니라, 주어의 유정성이 「-을/-를」의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다.

60년대 이전에는 「-을/-를」의 공간적 의미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助詞) 연구의 한 분야로 「-을/-를」의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70년대 이후에는 「-을/-를」의 연구에서 「-을/-를」의 의미를 논의하는 가운데 공간적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 차츰차츰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연구 초기에 논의된 「-을/-를」의 의미는 공간적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을/-를」의 여러 가지 의미의 하나로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들의 논의 가운데 「-을/-를」의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표의 용어가 설명하는 범위나 대상뿐만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2.1. 주어가 가지는 체언의 속성이 「-을/-를」의 공간적 의미를 제한한다고 말한 사람은 적다.

이상규(1990), 손인호(1995)는 「-을/-를」의 명사 구절이 공간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주어에 「+유정물」이라든지 유정성 명사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2.2. 부가어의 짜임이나 「-을/-를」의 기능, 의미, 또는 명사의 의미

3) 류구상(1989), 121쪽, 2.4 {를}의 의미

| 문법 범주  | 논의의 초점   | 「-을/-를」의 공간적 의미에 관련된 내용                                                                                                                                                                                     |
|--------|----------|-------------------------------------------------------------------------------------------------------------------------------------------------------------------------------------------------------------|
| 1) 주어  |          | 이상규(1990) [+유정물]<br>손인호(1995) 유정성 명사                                                                                                                                                                        |
| 2) 부가어 | ① 처소 부사어 | 손인호(1995) 부가항의 이행성                                                                                                                                                                                          |
|        | ② 대격 조사  | 최현배(1975) 부림말<br>김민수(1976) 가객어, 유사객어<br>성광수(1979) 강조의 의미<br>임홍빈(1979) 주제화 기능<br>서태룡(1980) 대립적 내용의 전제<br>이상규(1980) 의미 강세 기능<br>신현숙(1980) 주의 집중<br>김경학(1984) 화용론적 기능<br>이광호(1988) ‘을’ 주제화<br>류구상(1989) 대립과 지정 |
|        | ③ 명사     | 김용석(1979) 장소의 명사<br>임홍빈(1979) 「+Human-Place」<br>곽중훈(1988) 공간 명사<br>김승곤(1989) 기점, 경로<br>이상규(1990) 「+처소성」 자질                                                                                                  |
| 3) 서술어 | ① 자동사    | 곽중훈(1988) 방향, 출발, 위치, 도착<br>이광호(1988) 왕래발착<br>김승곤(1989) 제움직씨                                                                                                                                                |
|        | ② 동사     | 임홍빈(1978) 장소 이동의 운동 동사<br>김용석(1979) 「+movement」<br>이상규(1980) 동작성 용언<br>이상규(1990) 동작동사<br>손인호(1995) 동작성                                                                                                      |
|        | ③ 자릿수    | 손인호(1995) 둘 이상의 참여항                                                                                                                                                                                         |

자질 따위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을/-를」의 공간적 의미를 논의하는 으뜸 항목이 되고 있다.

2.2.1. 손인호(1995)는 목적어가 될 수 없는 처소 부사어에 실현된 ‘을’을 대격 표지로 보지 않고, 부가항이 이행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목적어에 대한 영향성이 높을수록 이행성이 높은 문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2.2.2. 최현배(1975)는 우리가 오랜 동안을 알고 있었던 「-을/-를」의 명사 구절을 부림말이라고 하고, 김민수(1976)는 객어라 할 수 없는 것을 가객어, 유사객어라고 부른다. 성광수(1979), 이상규(1980)는 「-을/-를」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 하고, 서태룡(1980), 류구상(1989)은 대립을 전제하는 것이고, 신현숙(1980)은 주의 집중을, 임홍빈(1979), 이광호(1988)는 주제화 기능을, 김경학(1984)은 화용론적 기능을 나타낸다고 한다.

2.2.3. 김용석(1979)은 장소의 명사를, 임홍빈(1979)은 「+Human-Piace」를, 곽종훈(1988)은 공간 명사를, 김승곤(1989)은 기점과 경로를, 이상규(1990)은 「+처소성」 자질을 말하고 있다.

2.3. 서술어가 가지는 의미를 「-을/-를」의 공간적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른 나라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또한 서술어 자릿수에 관심을 두고 「-을/-를」의 의미를 논의하는 사람도 있다.

2.3.1. 김승곤(1989)은 서술어에 제움직씨를, 이광호(1988)는 왕래발착을 뜻하는 자동사를, 곽종훈(1988)은 방향, 출발, 위치, 도착을 뜻하는 자동사류를 쓴다고 하였다.

2.3.2. 임흥빈(1978)이 의미론적으로 조건된 장소 이동의 운동 동사를 말한 이래, 김용석(1979), 이상규(1980), 이상규(1990), 손인호(1995)는 서술어의 동작성이 「-을/-를」의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2.3.3. 손인호(1995)는 서술어가 행동주 참여항과 이행자 참여항을 가지고 이행성 문장을 만든다고 한다.

### 3. 에스페란토의 공간 부가어(lokadjektoj)

공간 부가어(lokadjektoj) 가운데에서 대격의 형태를 가지고 방향의 뜻을 나타내는 구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에스페란토에 있어서 ‘대격은 주격의 끝에 어미 ‘n’를 덧붙여 쓴다’, ‘방향을 나타내려면 단어는 대격 어미 ‘n’를 받는다.’<sup>4)</sup>는 것이 기본 법칙이다. 어절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가어로 나눈다. 부가어는 공간 부가어, 시간 부가어, 상태 부가어, 양식 부가어, 상관 부가어로 나눈다.

공간 부가어는 위치 공간 부가어(poziciaj lokadjektoj), 이동 공간 부가어(movaj lokadjektoj)로 나눈다. 우리는 이들 공간 부가어 가운데에서 방향(direkto)의 뜻을 가지고 있는 대격 어미 ‘n’를 쓴 공간 의미의 명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격 어미 ‘n’를 쓴 구절은 목적어 이외에도 계속,

4) K. KALOCSAY, G. WARINGHIEN(1980), pp. 19—20, B. Reguloj 4, 14

5) K. KALOCSAY, G. WARINGHIEN(1980), p.252, § 184

계속 : *Mi jam tridek jarojn estas lombisto.* 나는 30 년을 묘지기이다.

방향 : *La birdo flugis en la ĝardenon* 그 새는 정원 안으로(을) 날았다.

측량 : *Li kuris tridek kilometrojn* 그는 30 킬로메터를 달렸다.

시점 : *Vaŝington estis naskita la dudek-duan de Februaro* 워싱턴은 2월 22일에 태어났다.

방법 : *pendigi tiun ĉi kanajlon sub la ĉielo la kapon malsupren* 하늘 밑에 이 악한을 목을 아래로 걸기

방향, 측량, 시점, 방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5)</sup> 이 가운데에서 주로 방향의 뜻을 가지고 있는 대격 어미 ‘n’가 나타나는 보기글을 아래에 들어 본다.

3.1. 위치 공간 부가어는 방향의 뜻을 가지지 않으므로 대격 어미 ‘n’를 쓰지 않는다. 이 부가어는 오직 위치 전치사(구)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을/-를」이 공간적 의미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4.1. 위치의 의미)

3.2. 이동 공간 부가어는 정지한 것에 관계하여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 정지한 것이란 어떤 것은 고정된 점(fiksa punkto)이고, 어떤 것은 전체 위치(tuta pozicio)일 수도 있다. 이동은 무엇올(에서) 떠나가기(demovo), 무엇올(으로) 지나가기(tramovo), 무엇올(예/으로) 다가가기(almovo)이다. 이 가운데에서 방향의 뜻을 가지고 있는 대격 어미 ‘n’가 나타나는 것은 지나가기와 다가가기를 나타내는 부가어뿐이다. 우리말에서는 떠나가기, 지나가기, 다가가기 모두가 「-을/-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4.2. 운동의 의미)

3.2.1. 점에 관련한 이동에서 대격 어미 ‘n’를 쓴 01) 가. 는 다가가기에 서 나타난다.

01) 가. Mi iras Parizon.(나는 파리를 간다.)<sup>6)</sup>

나. Mi iras al Parizo(나는 파리로(에) 간다.)

방향의 뜻을 가지고 있는 대격 어미 ‘n’를 전치사와 함께 쓴 02) 나. 는

6) K. KAILOCSAY, G. WARINGHIEN(1980), p.260, 대격은 원래 *mi iras Parizon*과 *mi amas la patron*에서의 목적어와 방향 부가어를 나타내기 위하여 동시에 그것을 쓴다고 설명하는 행동의 방향을 나타낸다. *Parizon*과 *patron*이 물리적이거나 비유적인 운동, 행동 또는 감각이 목표하고, 적중하는 점이다. 방향 대격의 쓰임은 말의 사람과 함께 더욱 더 넓어졌다. 명사에서뿐만 아니라 위치 부사와 함께 쓰인다.

지나가기에서 나타난다.

02) 가. *kuri trans la strato*(도로 건너에서 달리기) = 말하고 있는  
도로 건너에 있는 다른 도로에서 달린다는 뜻

나. *transkuri la straton*(도로를 건너달리기) = 다른 십자 도로  
에서 달리고, 실제 도로를 너비로 가로지르고 아마 십자 도로  
에서 더욱이 건너 측면에서 달린다는 뜻

03)에서와 같이 가끔 부가어의 전치사가 서술어의 준접두사가 되고,  
전치사의 보충 명사가 준접두사를 가진 서술어의 목적어가 된다. 이런  
쓰임은 특히 위치 전치사에서 나타난다.

03) 가. *iri en la ĝardenon* : *eniri la ĝardenon*(정원을 들어가기)

나. *iri sur monton* : *suriri monton*(산을 올라가기)

다. *esti ĉe kunsido* : *ĉeesti kunsidon*(모임을 참가하기)

3.2.2. 위치에 관련한 이동에서 대격 어미 ‘*n*’가 전치사와 함께 쓰면서  
다가가기가 나타난다.

04) 가. *Ŝteliston neniu lasas en sian domon*(=*lasas eniri*)(아무도  
도둑을 자기 집 안을 놓아두지 않는다(들여가기).)

나. *Ŝi volis en kaleŝon*(=*enveturigi en...*)(그 여자가 마차 안을  
바랬다(... 안에 올라타기).)

04) 가. 나.에서는 이동 동사가 없이 제스스로 다가가기를 나타내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그것의 효과가 강하기조차 하다.

#### 4. 공간적 의미

우리말에서 「-을/-를」의 공간적 의미를 살펴봄에 있어서 에스페란토

의 경우에서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을/-를」이 위치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어디를 나느냐?’ 또는 ‘어느 곳을 누비느냐?’에 답하는 내용으로서 「-을/-를」 명사 구절이 된다.

둘째, 「-을/-를」이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동의 의미는 ‘어디를 가느냐?’에 답하는 내용으로서 「-을/-를」 명사 구절이 된다. 이동의 의미를 크게 떠나가기(demovo), 지나가기(tramovo), 다가가기(almovovo)로 나누어 본다.

#### 4.1. 위치의 의미

「-을/-를」의 공간 명사 구절이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05) 가. 공중을 나는(31011)<sup>7)</sup>

나. 공중에서 나는

06) 가. 하늘을 누비고 있다.(31237)

나. 하늘에서 누비고 있다.

05), 06)은 「-을/-를」의 공간이 ‘나는’과 ‘누비는’의 목표이기도 하지 만<sup>8)</sup>, 행동하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동 동사 ‘날다(31237)’, ‘날아다니다(22046)’, ‘누비다(31011)’, ‘돌아다니다(12013, 32227)’, ‘더듬다(32158)’, ‘방랑하다(32158)’, ‘서성거리다(32172)’, ‘여행하다(31026)’, ‘이동하다(32158)’, ‘해매다(32033)’, ‘헤엄치다(11107,

7) (31011)은 중학교 국어 3학년 1학기 11쪽을 나타낸다. 아래 모두 같다.

8) 6) 참고.

22219)’ 따위 때문에 「-을/-를」과 어울리는 공간 명사는 행동하는 위치를 뜻하게 한다.<sup>9)</sup> 공간 명사는 ‘거리, 계단, 공중, 길, 남서부, 뒷면, 만주, 속, 안, 위, 하늘’ 따위로 입체성, 유체성과의 관계를 따져서 이동 동사와 어울린다.

그런데, 이들 동사가 요구하는 「-을/-를」의 공간 명사 구절의 통사적 기능이 목적어인가 부가어인가. 이들이 목적어의 「-을/-를」이라면 「-을/-를」을 삭제할 수도 있으련만,<sup>10)</sup> 이 경우 전혀 삭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에서」와 교체가 가능하며<sup>11)</sup>, 이 때, 「-에서」의 공간 명사 구절은 목적어라 할 수 없으며 위치 공간 부가어라 할 수밖에 없다. 또, 「-을/-를」의 구절은 생략할 수는 있지만, 필수 성분이다. 그러니, 이들 동작 동사와 어울리는 「-을/-를」의 공간 명사 구절은 위치 공간 부가어가 된다.

이들 이동 동사가 「-에서」와 교체되는 공간 명사 구절을 가질 뿐만 아

9) 任洪彬(1979), 100쪽, (2-11) a. 철수는 서울에서 산다. / b. 철수는 서울을 산다. (2-11a)의 ‘서울’은 단순한 處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2-11b)의 ‘서울’은 ‘서울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뜻한다. 공기며 땅이며 거리며 그 화려함이며 非淸함이며 精神的인 雰囲気. 그 모든 것이 ‘서울’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다. ‘철수’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호흡하면서 사는 것이다.

10) 류구상(1989), 131쪽, (11-7)에서 ‘해경’은 행위자(주어)이고, ‘옥수수’는 목적어이며, ‘먹는 다’는 행위(서술어·타동사)이다. 이 때 ‘옥수수’가 단독으로 쓰일 경우와 {를}이 통합될 경우 성분이 바뀌든가, 아니면 통사적 기능이 다르다든가 또는 인지될 수 있는 문인가 인지될 수 없는 문인가의 어떤 차이점이 나타난다면, {를}과 ∅의 통사적 의미를 달리 볼 수 있다. 류구상(1989), 132쪽, {를}이 쓰이고 안 쓰이는 문제는 통사적 기능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으로 통사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갈뉘든 부분이 있다. 「-을/-를」을 안 쓰는 공간 어절이 어색하다. 「-을/-를」을 삭제하고 공간 명사를 쓴다면 이는 벌써 목적어가 된다. (글쓴이)

11) ‘돌다’와 어울린 공간 어절이라도 ‘섬을 돌 때(12149)’에서처럼 행동의 목표물일 경우, 「-에서」와 교체할 수 없고, 「-을」을 삭제하면 어색하다. 그래도, 이 때의 ‘섬을’은 ‘돌다’의 목적어라고 보는 게 좋다. 그러나, 문맥에 맞추어 「-을」을 「-에서」와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섬을’은 ‘돌다’의 위치 공간 부가어가 된다.

나라, 주어는 반드시 유정 명사를 가진다.<sup>12)</sup> 주어의 명사가 기본적 의미로 무정 명사와 하더라도 문맥적 의미에서는 반드시 의인화 또는 활유화가 되어야 「-을/-를」의 공간 명사 구절이 위치 공간 부가어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말에서는 「-을/-를」이 공간적 의미로 마련된 위치에서 옮겨가기를 나타낸다. 반면에 에스페란토에서는 위치 공간 부가어는 방향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대격 어미 'n'를 써서 옮겨가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 07) 두 구간의 거리를 가 보기로(11105)

07)에서는 ‘거리’가 이동 동사 ‘가다’와 어울리는 위치 공간 부가어라 할 수 있다. 에스페란토에서는 측량의 뜻으로 대격 어미 'n'를 쓴 것이다.<sup>13)</sup>

08) 가. 길을 가다가(11172)                      나. 길에서 가다가 : 위치  
다. 길로 가다가:이동:지나가    라. 길에 가다가:이동:다가

08) 가.의 공간 명사 구절에서 「-을/-를」을 삭제하면 어색하지만, 공간 명사가 내부성을 가지거나 목적성을 가질 때 삭제를 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을/-를」의 공간 명사 구절을 이동 동사와 반드시 함께 할 때, 「-을/-를」은 공간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만 공간 명사 구절의 「-을

12) 손인호(1995), 7쪽, 유정성(animate)명사가 행동주가 될 때 비유정성 명사가 행동주가 되는 문장보다 이행성 문장이 되기 쉽다.

李相揆(1990), 120쪽, 대격어미 「-을/-를」은 자동사와 공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는 자동사문에서 대격어미가 실현된다. 그러나 NP1 곧, 주어는 반드시 「-유정물」 자질의 체언이 오고 NP2는 반드시 「+처소성」자질의 체언이 오며 서술어는 동작동사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13) 5) 참고. 측량 : *Li kuris tridek kilometrojn* 그는 30 킬로메터를 달렸다.

14) 10) 류구상(1989) 참고.

「-를」을 나.처럼 「-에서」와 교체하면 위치 공간 부가어가 되는데, 다.처럼 「-(으)로」와 교체하면 지나가기나 다가가기를 뜻하는 이동 공간 부가어가 되고, 라.처럼 「-에」와 교체하면 다가가기가 된다.<sup>15)</sup>

운동 동사 ‘가다(11172, 12146, 22047)’, ‘거닐다(21048)’, ‘걸다(11109, 12006, 31027, 32102)’, ‘걸어가다(12054)’, ‘걸어오다(32159)’, ‘기다(22218)’, ‘기어오르다(11201, 11202, 11202)’, ‘달리다(21144, 22159)’, ‘돌다(12149, 31020, 32106)’, ‘흐르다(22156)’ 따위는 「-을/-를」과 어울린 공간 명사가 위치성, 통과성, 귀착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는 조사로 뜻을 다르게 본다. 또, 「-을/-를」과 어울리는 공간 명사 ‘길, 눈길, 들길, 밭, 벽, 사이, 산모퉁이, 수송관, 위, 주위, 해변’ 따위의 수평성 또는 입체성에 따라서 뜻을 가지게 된다.

## 4.2. 이동의 의미

「-을/-를」의 공간 명사 구절이 이동을 뜻하는 경우를 떠나가기, 지나가기, 다가가기로 나누어 본다.

### 4.2.1. 떠나가기는 이동 동사가 떠나가는 뜻을 가지고 있다.

09) 가. 걸을 떠나지 않던(12191)<sup>16)</sup>

나. 걸에서 떠나지 않던

10) 가. 문을 나매(32052)

나. 문에서 나매

15) 광종훈(1988), 247쪽, 「-을/-를」이 「-로, -에, -에서」 따위보다 강조의 뜻이 두드러진다.

16) 김용석(1979), 45쪽, 목적어화한 “고향”은, “떠나다”라는 동작의 기점(起點:출발점)이므로 격개념상 내면구조로는 시원격이며 술어동사 “떠나다”는 분명히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표면구조상 목적어로 표현되어 있다.

09)이 단순한 떠나가기라면, 10)은 공간 구절의 통과성 공간 명사와 통과성 이동 동사가 어울려 지나가기의 뜻도 가지고 있다. 09)에서처럼 공간 구절의 ‘문’과 이동 동사 ‘나다’가 함께 통과성을 가지는 경우에서만 지나가기의 뜻이 가능하다.

이탈성 이동 동사 ‘나다’, ‘나가다(22165)’, ‘나서다(31204)’, ‘나오다(12062, 12074, 21053)’<sup>17)</sup>, ‘내려가다(11202)’, ‘내려오다(11202, 11131, 12061, 12074, 12127, 21051, 21065, 21138)’, ‘내리다(11203)’ ‘돌아오다(11131)’<sup>18)</sup> ‘떠나다(12012, 12146, 21050, 21063, 21065, 21225, 22158, 22163, 22166, 22169, 22170, 22200, 32052)’<sup>19)</sup>, ‘물러나다(12077)’, ‘물러나오다(22074)’ 따위가 떠나가기를 나타낸다.

이들이 가지는 공간 명사 구절의 「-을/-를」을 삭제할 수 없지만, 위치 조사 「-에서」 따위와 교체할 수는 있다. 그러니, 이들이 가지는 공간 명사 구절은 떠나가기를 뜻하는 이동 공간 부가어이다. 이동 공간 명사 ‘결, 고장, 골짜기, 그 곳, 나라, 마을, 막, 목욕탕, 미륵산, 슬하, 승강구, 여전, 영(嶺), 일자리, 자리, 층계, 포항, 플랫폼, 학마을’ 따위가 가지는 수직성, 수평성이 뜻을 나타내는 데에 중요하다.

이 가운데 ‘나다’, ‘나가다(22165)’, ‘나서다(31204)’, ‘나오다(12074, 21053)’와 같은 통과성도 가진 이동 동사라야 통과성 공간 명사 ‘문’, ‘사이’ 따위와 어울려 지나가기의 뜻도 나타낸다. 곧, 이동 동사와 공간 명사가 통과성을 가질 때 떠나가기와 아울러 지나가기의 뜻을 가진다.

17) ‘방을 나왔다(12074)’는 단순한 멀어지기라면, ‘사립문을 나오다가도(21053)’는 지나가기도 함께 뜻한다. ‘문을 밖을 나왔다(31069)’는 공간 명사 ‘밖’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 다가가기 나타낸다.

18) ‘자리에 돌아와 앉는다(12207)’는 다가가기이므로 「-에」대신에 「-를」을 쓰면 의미가 모호하다. 그러나, ‘밥두령을 돌아왔다’에서의 「-을」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니(12065)’, ‘북쪽으로 부터 돌아왔을 터인데(22005)’에서와 같은 「-에서, -으로부터」 따위는 멀어지기이다.

19)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21065)’는 익은말[熟語]이다

우리말에서는 「-을/-를」의 이동 공간 부가어가 떠나가기를 뜻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에스페란토에서는 떠나가기가 방향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대격 어미 'n'를 쓴 것이 없다.<sup>20)</sup>

#### 4.2.2. 지나가기는 이동 동사가 지나가는 뜻을 가지고 있다.

11) 가. 식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는(32034)

나. 식당으로 가로질러 지나가는

12) 가. 대밭을 지나(12148)

나. 대밭으로 지나

11), 12)에서는 「-을/-를」과 어울린 공간 명사가 통과성 이동 동사와 어울려 지나가기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 명사 구절의 「-을/-를」을 삭제할 수 없고, 「-(으)로」와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간 명사 구절은 지나가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동 공간 부가어가 된다.

통과성 이동 동사 ‘거치다(31020, 31191, 32158)’, ‘건너다(11200, 11201, 11202, 11202, 12011, 12054, 12056, 12056, 12063, 12073, 12141, 22188, 31204, 32159)’, ‘건너가다(12054)’, ‘굽어들다(32159)’, ‘내려가다(22214)’, ‘넘나들다(22074, 22078, 31237)’, ‘넘다(22212)’, ‘넘어 가다(11209, 31026)’, ‘넘어오다(11070)’, ‘스치다(12057, 22156, 32038)’, ‘지나다(11104, 12056, 12058, 12148, 21054, 21133, 21239,

20) K. KALOCSAY, G. WARINGHIEN(1980), p. 262, 대격의 고유한 목표의 의미와 *ekster*와 같은 전치사 뒤에서의 대격 사용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 대립성은 이런 경우에 목표는 전치사적 명사 자체가 아니고, 완전한 전치사로 나타내는 위치라는 것을 설명하게 된다. *kuri ekster la urbon*(도시 밖으로 달리기)와 *kuri al la urb-ekstero*는 같다. --떨어지기라도 방향을 바꾸어 다가가기로 하면 'n'를 쓸 수 있다.

21) 任洪彬(1978), 99쪽, B. 意味論的으로 條件된 것. ① 場所移動의 運動動詞(Movement Verb). 예 ; (밤길을) 가다, (山)을 흐르다, (길울) 가다, (땅울) 기다. (집앞을) 지나다 등. --이를 가운데 '지나다'만 지나가기를 뜻하는 운동 공간 부가어와 어울리고, 나머지는 위치 공간 부가어와 어울리는데 표지된 위치, 즉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된 위치 안에서만 운동하는 것이다.(글쓴이)

22047, 22047, 32159)<sup>21)</sup>, ‘지나가다(11086, 11086, 21239, 32031, 32173)’, ‘지나오다(31063)’, ‘지나치다(21048, 21238)’ 따위가 「-을/-를」의 공간 명사 구절을 지나가기의 뜻을 주는 이동 공간 부가어가 되게 한다.

공간 명사로는 ‘강, 개울, 거기, 거리, 고개, 고갯길, 골목골목, 국경, 길, 대밭, 대밭목, 도랑, 뜰, 단경창파, 모퉁이, 밭, 밭머리, 서산, 식당, 앞, 압록강, 오작교, 이 곳, 징검다리, 참외밭, 철로’ 따위가 두루 어울리고 있다.

에스페란토에 있어서 지나가기는 전치사에 따라 나타나고, 전치사 대격으로 지나가기를 쓰는 일이 있다.<sup>22)</sup>

#### 4.2.3. 다가가기는 이동 동사가 다가가는 뜻을 가지고 있다.

##### 13) 가. 도서관을 가 보면(21138)

나. 도서관에 가 보면 : 아주다가가기

다. 도서관으로 가 보면 : 덜다가가기

13) 가.가 「-을/-를」과 어울린 단순한 다가가기라면, 나.는 아주다가가기이고, 다.는 덜다가가기의 뜻을 나타내는 이동 공간 부가어이다.<sup>23)</sup> 「-을/-를」을 위치 조사 「-에서」와 교체하면 어색한 것은 공간 명사가 내부성을 가지거나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이 공간 명사 구절이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동 동사와 어울려서 다가가기의 뜻

22) K. KAI.OCSAY, G. WARINGHIEN(1980), p.262,

01) *transflugi super la tegmento*(지붕 위에서 날아 넘기)

02) *flugi trans tegmenton*(지붕 위를 넘어 날기)

01) 02) 사이에는 어감 차이가 있다. 앞은 단순한 지나가기이고, 뒤는 날기의 목표가 지붕을 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23) K. KAI.OCSAY, G. WARINGHIEN(1980), p. 260.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격울, 전치사가 없으면 목표의 내부(interno)를 도착할 때만 쓸 수 있다. *iri Parizon*(파리를 가기), *lernejon*(학교를), *preĝejon*(교회들).

任洪彬(1979), 120쪽, 주15, ‘가다’와 관련되는 處所는 단순한 「+Place」만으로는 부족해 듯하다. 「+Human-Place」와 같은 것을 想定해 볼 수 있음직하다. ‘강 가다. 산 가다. 바다 가다’ 등이 모두 奇妙하고, ‘교회당 가다, 학교 가다, 市場 가다’ 등이 모두 成立하는 것은 후자가 「+Human-Place」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을 나타내는 이동 공간 부가어라는 것이다. 여기에 쓴 이동 동사와 어울리는 공간 명사의 「-을/-를」을 13) 나.처럼 「-에」<sup>24)</sup>와 다.처럼 「(으)로」와 교체하면 아주다가가기나 멀다가가기를 뜻하는 이동 공간 부가어가 된다.

귀착성 이동 동사 ‘가다(12065, 12065, 12066, 21045, 21138, 31054)’, ‘나가다(11104, 31058)'<sup>25)</sup>, ‘나오다(21057)'<sup>26)</sup>, ‘다녀오다, (21056)’, ‘다니다(21056, 21057, 22131)’, ‘따르다 (12174)'<sup>27)</sup>, ‘방문하다(22167, 22217, 32066)’, ‘오다(31072)’, ‘오르다(12149, 12197, 12197, 12199)’, ‘올라서다(12197, 12199)’, ‘올라오다(12207)’, ‘쫓아가다(32040)’, ‘찾아가다(22172, 22213, 32223)’, ‘찾아들다(22047)’, ‘찾아오다(21047, 21138, 22221, 32035)’, ‘침입하다 (22075)’, 따위들이 내부성이나 목적성을 가지는 공간 명사와 어울렸을 때, 「-을/-를」 명사 구절은 다가가기의 이동 공간 부가어이다.

이들 가운데 ‘방문하다(22167, 22217, 32066)’, ‘쫓아가다(32040)’, ‘찾아가다(22172, 22213, 32223)’, ‘찾아들다(22047)’, ‘찾아오다(21047,

24) 유정 명사일 때 「-에게」와 교체해야 한다.

01) 가. 날 주신 거란다(31060)

나. 나에게 주신 거란다

02) 가. 상원사로 가 스님들을 피하라고 했다.(고1135)

나. 상원사로 가 스님들에게 피하라고 했다

25) ‘시내엘 나가셨는데(11104)’는 ‘-에’ 때문에 다가가기가 분명한데, ‘군중 사이를 빠져 나가면서(22165)’는 ‘사이’와 ‘빠져’ 때문에 지나가기라고 해야 하겠다.

26) 17) ‘방을 나왔다(12074)’ 참고.

27) ‘그 뒤를 따라 걸었다(21062)’의 「-을/-를 따라서」나 ‘대륙을 향하여 항해하는(22213)’의 「-을/-를 향하여」도 운동 동사 ‘걸다」나 ‘항해하다’와 어울려 위치 또는 운동의 뜻을 나타낸다.

곽중훈(1988), 255쪽, 5. 불완전 동사와의 쓰임, 조사 「-을/-를」이 몇몇 동사의 연결형 따위와 관용적으로 어울려서 조사화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단일 조사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강조의 뜻이 줄며 가끔 어색해지기도 한다.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고2124), 나를 대신하여(고2042), 금허리띠쇠를 비롯하여(고1079), 이의 통합을 위하여(고1021), 국어를 통하여(고1148), 목표를 향하여(고1131), 누구를 막론하고(고3086)’

21138, 22221, 32035)’ 따위와 같은 것들이 「-을/-를」을 삭제할 수 있고, 명사가 ‘골짜기, 뒤, 마을, 섬, 식물원, 여기, 집, 한국’ 따위처럼 내부성을 가지거나,<sup>28)</sup> ‘나, 스승’ 따위처럼 인격성을 가질 때는 목적어라고 한다.

에스페란토에서는 대격 어미 ‘n’가 제스스로 방향(al)과 도착(gis)을 함께 나타내는 al과 gis을 대신하여 다가가기를 뜻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sup>29)</sup>

## 5. 맺 음 말

5.1.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맺음말로 한다.

5.2. 「-을/-를」과 관계된 논의들을 훑어 보면, 이동 동사와 공간 명사가 위치 또는 공간 조사로써 어울릴 뿐만 아니라, 주어의 유정성이 「-을/-를」의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5.3. 에스페란토의 공간적 부가어 가운데에서 방향(direkto)의 뜻을 가지고 있는 대격 어미 ‘n’를 쓴 공간적 의미의 명사에 관심을 두고 있다.

5.4. 「-을/-를」의 공간적 의미는 첫째, 위치의 의미, 둘째, 이동의 의미로 나누어 본다.

5.4.1. 「-을/-를」을 삭제할 수 없고, 「-에서」와 교체가 가능하면, 「-에서」의 공간 명사 구절은 목적어가 아니면서 필수 성분인 것처럼, 동

28) 10) 류구상(1989) 참고.

29) K. KALOCSAY, G. WARINGHIEN(1980), p.262,

01) 가. *la muso kuris sub la lito*(생쥐가 침대 밑을(으로) 달렸다.)

나. *la muso kuris al sub la lito*(생쥐가 침대 밑으로 달렸다.)

02) 가. *mi akompanis lin en lia domon*(나는 그를 그의 집 안을(으로) 데리고 갔다.)

나. *mi akompanis lin ĝis en lia domo*(나는 그를 그의 집 안까지 데리고 갔다.)

01) 가. 나와 02) 가. 나.에서의 두 표현 방법 사이의 차이는 전치사의 대격(가.의 경우)이, 제 스스로 방향(al)과 도착(ĝis)을 함께 나타내는 al과 ĝis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아마 그래서 그것은 전치사구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작 동사와 어울리는 「-을/-를」의 공간 명사 구절도 위치 공간 부가어가 된다.

5.4.2. 이동은 의미는 떠나가기(demovo), 지나가기(tramovo), 다가가기(almovo)로 나누어 본다.

5.4.2.1. 공간 명사 구절의 「-을/-를」을 삭제할 수 없고, 위치 조사 「-에서」 따위와 교체할 수는 있으면, 이 공간 명사 구절은 떠나가기를 뜻하는 이동 공간 부가어이다.

5.4.2.2. 「-을/-를」과 어울린 공간 명사가 통과성 이동 동사와 어울려 지나가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 명사 구절의 「-을/-를」을 삭제할 수 없고, 「-(으)로」와 교체할 수 있으면, 이 공간 구절은 지나가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동 공간 부가어가 된다.

5.4.2.3. 「-을/-를」을 위치 조사 「-에서」와 교체하면 어색한 것은, 이 공간 구절이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동 동사와 어울려서 다가가기의 뜻을 나타내는 이동 공간 부가어라는 것이다. 「-을/-를」을 「-에」와 「-(으)로」와 교체할 수 있으면, 아주다가가기나 덜다가가기를 뜻하는 이동 공간 부가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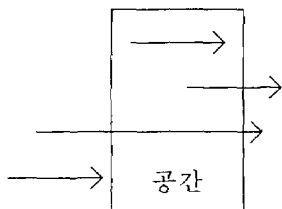
5.5. 「-을/-를」의 공간적 의미는 결국 제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동 동사와 공간 명사가 어울리게 하는 위치 또는 공간 조사의 의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①위치-옮겨가기: - / - /-에서

②공간-떠나가기: - / - /-에서

③공간-지나가기: -(으)로/ - / -

④공간-다가가기: -(으)로/-에/ -



## 참 고 문 헌

- 곽종훈(1988), "조사 「-을/-를」의 특이한 쓰임", 〈龍淵語文論集〉(경성대 국문과) 4.
- 김경학(1984), "구절구조 문법과 국어의 이중목적어 구문", 〈문법연구〉 5.
- 金敏朱(1976), 〈國語文法論〉(一潮閣).
-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전국대학교출판부).
- 김용석(1979), "목적어조사 '을/를'에 관하여", 〈말〉 4.
- 류구상(1989), "국어조사 {를}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102.
- 閔賢植(1982), "現代國語의 格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9.
- 배해수(1977), "격의 연구", 〈어문론집〉(고려대) 18.
- 서정수(1991), "국어의 목적어에 관하여", 〈김영배공간 명사 구절념논총〉(경운출판사).
- 徐泰龍(1980), "動名詞와 後置詞 {은} {을}의 基底意味", 〈震檀學報〉 50.
- 성광수(1974), "국어 주어 및 목적어의 중출현상에 대하여", 〈문법연구〉 1.
- 成光秀(1979), 〈國語助辭의 研究〉(대구:螢雪出版社).
- 손인호(1995), "국어 조사 '을/를'의 실현 조건", 〈한글〉(한글학회) 228.
- 신현숙(1981), " /-을/의 의미연구", 〈자하어문논집〉(상명여사대) 1.
- 申鉉淑(1982), "목적격 표지 /-를/의 의미연구", 〈언어〉 7-1.
- 李琬鎬(1988), 〈국어 격조사 '을/를'의 연구〉(탑출판사).
- 이기백(1991), "격조사의 부차 기능에 대하여", 〈국어문법학논총〉(도서출판 태양).
- 이방규(1986), "경북방언 격조사의 형태와 기능", 〈경북대 석사〉.
- 李相揆(1980), "'을/-를'의 範圍와 機能", 〈文學과 言語〉(경북) 1.
- 李相揆(1990), "경북방언의 격어미 형태구성과 기능", 〈어문론총〉(경북) 24.

이상태(1975), "자리토 연구", 〈어문학〉(한국어문학회) 33.

任洪彬(1978), "國語 被動化의 意味", 〈震檀學報〉, 45.

任洪彬(1979), "{을/를} 助詞의 意味와 統辭", 〈한국학논총〉(국민대) 2.

전재호(1972), "현대어 조사의 실태 조사 분석", 〈어문학〉(한국어문학회) 26.

千璣哲(1984), 〈國語의 動作動詞와 狀態動詞의 體系研究〉(대구:螢雪出版社).

최현배(1975), 〈우리 말본〉(정음사)

Kalocsay, K., Waringhien, G.(1980), 〈Plena Analiza Gramatiko de Esperanto(에스페란토 완전 분석 문법)〉(Universala Esperanto—Asocio)

Mimó, L.(1973), 〈Kompleta Lernolibro de Regula Esperanto〉(Analiza Skolo)

Waringhien, Gaston(1959), 〈Lingvo kaj Vivo〉

Wells, John(1978), 〈Lingvistikaj Aspektoj de Esperanto〉(Universala Esperanto—Asocio)

Zamenhof, L.L.(1962), 〈Lingvaj Respondoj〉(Esperantaj Francaj Eldonoj)